시 평 유고시집을 통해 본 이연주의 시세계

허무와 패배로 일관된 자의식

이연주 詩集 속죄양, 유다

얼마전 영화 '에어리언3'를 보았었다. 인간이 구축한 우주선에 사는 사람잡아먹는 괴물 이야기였다. 귀신이나 유령과는 다르게 괴물들은 도대체가 막무가내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것들은 덧없는 욕망덩어리이며 어둠과 음습한곳에 숨어사는 인간부산물들이었다. 귀신이나 유령이라면 홀홀 날아가기나 하겠거니와 문명의 시멘트 사이에나 하수도 속에 거처하기 일쑤인 현대판 괴물들은 파충류적 습성으로 부각된다.

최근에 읽게된 한 여류 시인의 유고시들이 에어리언을 생각케 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녀의 시적 상상력은 역기스를 잃은 쭈글쭈글한 살가죽을 끌어올려 목을 움츠리는 인간 에어리언을 연상시키며 블랙홀로 사라지는 한 목소리같았다. 그녀 스스로 "나는 생각했네/먹이감과 살 터를 찾아 눈먼, 인간 에어리언들의 공중전파/그 버림목이 되는 가슴없는 세계" (겨울나무가 내 속에서-위험한 시절의 진료실2)라고 이 세상을 진단했기에 그랬던가? 어쩠든 삶의 희비를 안으로 삭이어 끝내는 정신의 높이를 얻는 묘미가 진한 감동으로 전해오던 기왕의 시정(詩情)들은 이미 성자의 시대에나 가능하다는 듯이 이연주의 시공들은 피를 토하고 깨어지며 눕지이거나 "씌운 파일들이 줄을 흘리는/구더기떼와 쌀바구니가 굼실거리는 곳간 구석"(속죄양 유다, 그리고 외계인-위험한 시절의 진료실8)쯤에서 외계인을 만나는 정서다. 우리는 그 외계인이 더는 전설적인 저승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안다. 그들은 문명의 때에 절은 피폐한 지성인들이며 인간의 체온을 잃은지 오랜 "너도 아니며 그 또한 아니며/아무것도 아니나 나"(만일 누군가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면)로 언표된다. 그러한 존재는 누구인가? 아니 무엇인가?

살아남는 것은 내성 강한 병균들뿐 풋풋한 인간애 동경 짙게 드러나기도

사실 그래도 여류시인인데 "방법이야 상관없는 사랑/로존 휴지같은 세상에서/내가 빨아먹을 즙은/내성이 큰 병균들의 걸죽한 피"(흡혈귀)라는 싯귀절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지옷 외아스러워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의 존재공간이 과연 이만큼까지 부패하였을까? 부정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세상이 부패하여도 살아남는 것들 중 내성이 강한 병균들이 아니겠는가? 또 인간이 부패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은 그러한 병균들의 피를 마시는 길밖에는 없지 않을까?

그녀에게 있어 세상은 이미 늙었고 사원은 폐허가 되었으며 자의식조차도 고집센 옛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 옛 건물들은 온갖 세상의 음모와 횡포속에 심한 만성장애를 일으키며 헐어가고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생성소멸의 과정이 아니다. 인간은 자연의 생성소멸의 순환고리를 끊어왔다는 것이 이연주가 인식한 도시문명의 특징이기에 그렇다. 역설적이게도 부패를 거부한 도시문명 속에서는 "녹슬은 수도관을 걸어나오는 쇠 썩는 냄새" (성자의 권리5)가 난다. 그곳은 "하혈을 쏟는 에미 난관을 빠져나와/금속기계들이 훑고 간 삶"이 있는 곳이며 구더기떼들이 득실거리는 몸속에서 태어나는 원시세포들을 목격하는 곳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터지는 비명을 참아야하는 것이다. 필경은 실어증이 되고말 모진 꿀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 우리들이란 것을 그녀의 시는 반증하고 있다. 그러한 곳에서라면 자신도 그렇게 존귀하지만은 않다. "자신은 방류된 폐수며 썩은 강물, 모친을 살해한 딸년, 제 경험한다/절구통에 웅크린 자신을 빻는다./고독한 행위다" (우렁달팽이의 꿈) 그러나 그녀는 딱딱하고 둔한 외피가 되어버리는 자폐적 공간(절구통)에서조차 추위 자신을 빻는 자학적인 행위를 일삼는 우리들에게 외부를 덮혀 진흙길을 가게하는 힘은 제 몸의 체온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 준다. 그래서 익명의 누군가가 와서 내집 문을 두드렸을 때 그를 위해 자신의 체온으로 뜨거운 차를 끓여줄 수 있는 우렁달팽이의 꿈을 노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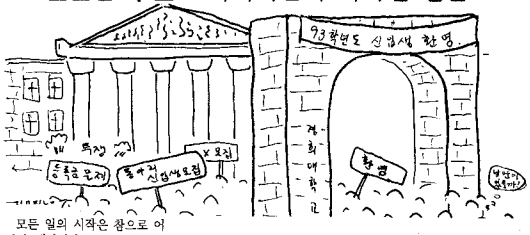
그녀가 비록 도시문명의 뒷골목을 쳐다보며 어둡고 깊고 슬프게 살다 갔긴 했지만 습습한 토양의 진흙 속에 눕고 싶어했던 우리의 이웃이며, 순수한 자연인이었다는 사실은 다음 시편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늙은 여자 뒤덮미에 비수를 꽂듯
가을 끝물 봉숭아 꽃을 따다보면
으깨 빨다보면
봉숭아 꽃,
습습한 토양의 진흙 같아
네게 눕고 싶다.
…(중략)
딱딱한 각질의 손톱을 뚫고
아주 천천히
네가 내 속으로 들어올 때
순결한 피를 먹은 손톱이
누군가의 목덜미를 할퀼 수는 없는 일이다.
(봉숭아 꽃물 들일 때 주검저 너머에는-위험한 시절의 진료실9)

그렇다. 봉숭아 꽃물들인 손은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피폐한 상황이 되어도 남의 목덜미를 할퀼 수는 없는 일이다. 일말의 따스한 마음을 지닌 한 여류 시인이 얼마전 죽었다. 그 이유를 나는 잘 모른다. 제 몸 속에 자라는 에어리언의 씨앗을 멀리 버리기 위해서나 아니었는지?

이 병 도
〈대학원 박사 3기·국문학〉

신입생 수필 — 새내기들이 가야할 길은…



대학생활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언젠가는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고…

모든 일의 시작은 참으로 어렵게 생각된다.

다른 동기들에 비해 늦은 대학생활 때문인지 대학에 대한 막연한 기대들—미팅, 낭만, 분방한 생활, 그리고 아름다운 교정—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학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불안 섞인 설레임이 앞서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설레임에 대한 마음가짐도 다지지 못한 채 예비대학이나 단과대 모꼬지, 입학식, 연이은 선배·동기들과의 술자리 등등으로 학교생활은 시작되었고, 그 시간들은 무너진 둑의 물처럼 대책없이 지나갔다.

봄이되면 따뜻한 빗방울이 겨울내 꽁꽁 얼어붙은 땅에 내려와 씨앗의 앞길을 축축히 적셔주듯, 새내기들을 위한 여러 모임은 우리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애든 것에 대한 위로와 학교생활의 매듭풀기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좋은 내용도 많았고 적지않은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대개 술자리로 끝나곤 했다.

여하튼 뚜껑은 열렸고 우린 바쁘게 강의실을 찾아 다녔고, 곳곳에 나붙은 대자보며 유인물 속에서 다시 "나의 대학생활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으나, 좀 더 두루두루 살펴보기로 했다. 선배님들의 학교에 대한 각종 요구사항을 보며 '여지껏 그래왔듯이 그냥 생활하면 되지 왜 쉽게 될 것 같지도 않은 문제들에 대해 저토록 열성적일까?'라는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런데 과총회날 머칠째 문리대 공간문제 해결을 위해 단식 투쟁을 하던 문리대 학생회장의 짧은 말 한 마디가 어느정도 의문에 대한 답이 되었다.

비록 새내기지만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봄일의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할 일은 하나로 굳게 뭉쳐 난관을 헤쳐 나가는 일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봄이다. 우리 새내기들은 푸른 새싹처럼 씩씩하게 자라나서 언젠가는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고 넓은 그늘과 풍족한 열매를 맺어 우리 자신들, 또 우리의 후배들, 모든 이들을 위해 열심히 열심히 자라나자.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 나는 지난 삶 속에서 그 말을 잊고 아니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 입시제도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또, 전교조 탄압문제가 얼마 악독한 것인지 격게나마 이해하면서도 무엇을 주장해야 하며,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니 '몰라서 못했다'라는 것은 아주 비겁한 변명일 것이다. '나와 관계 없으니까, 그런대로 그냥 지낼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아무 힘도 없는 내게는 너무나 거대해 보였다.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현재보다 더 모진 탄압의 시대에서서 많은 문제들을 지식인이 갖는 책임감으로 온 몸으로 부딪혀 갔다.

문 진 형
〈국문·1〉

연재소설

水菊 필 하루 〈3〉

글:김도형〈국문·4〉 그림:김진우〈미교·3〉

"대학이야 내 형편에……, 전기(電氣)말이다. 사촌형이 그거 안 하나. 손에 익은 기술은 없지만 어깨 너머 봐 둔 게 있으니까 어째 안 되겠나. 영선반 애들한테도 좀 배우고."

유일병은 씩 웃어 보였다. 땅달딴한 키에, 뻐드렁니에, 뭉뚝한 코에, 봐 줄 거라고는 사람 좋은 웃음 뿐이었다. 무쪽 같은 사람이지만, 가슴 속자락에 물든 절망의 빛깔을 어림풋이 알게 되자, 엇갯갓한 정이 들었다.

오전 업무는 느긋한 편이지만 오후 업무는 늘 빠듯했다. 사령부 상황보고가 끝나면 세 시까지는 담배 한 대 피울 짬도 없었다. 세 시를 넘기게 되면 댓바람에 전화벨이 울었다. 사령부 상황장교한테서 당장에 불호령이 떨어지는 것이다. 너희 놈의 새끼들은 내가 내려 가기만 하면 시궁창에 쳐 박아 넣고 만다.

그 섬찟한 소리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각 근무대와 참모부의 상황보고담당들을 다그치는 수밖에 없었다. 늦어도 한시 삼십분 까지는 상황보고 접수가 마무리돼야 제 시간에 맞춰서 끝내고 사령부 보고를 끝낼 수 있었다.

정보작전과는 이따금 씩 말썽이었다. 행정과도 겨끔내기로 발을 냈다. 다른 근무대나 참모부는 시간 어기는 일이 거의 없었다. 제시간에 상황보고가 올라 오지 않으면 과장이 가만 있지 않았다. 상황보고 용지를 가지고 올라온 사병을 온갖 듀셀과 함께 벌을 받아야 했다. 벌도 꼭 얄궂은 벌을 세웠다. 과장실이나 운영반 거울 앞에서 무릎꿇고 있으라거나 아니면 한 술 더 떠 두 팔까지 들라고 했다. 차라리 깨끗하게 한대 맞고 훌훌 털어버리는게 낫지, 그만큼 불쌍사나운 꼴은 또 없었다. 지원동계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싶은날, 정작과나 행정과에서는 선임하사를 보냈다. 과장들의 지시인지 아니면 선임하사의 자원(自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병들이 수모를 막아줄 길은 그 방법 밖에 없었다. 아무리 표독스런 과장이라도 선임하사한테는 그럴 수 없었다.

그날 정작과가 시간을 넘기고 말았다. 과장의 심기가 불편한 것을 눈치 챈 보좌관 하(河)대위가 정작과로 전화를 넣었다.

"아, 이거 왜 이래. 우리도 좀 살자 응. 사령부 등쌀에 밥맛을 다 잃었다……. 그래, 그래 빨리 좀 올라 와라."

수화기를 내려 놓은 보좌관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할 수 없이 정작과 칸을 어림짐작으로 비워 놓고 상황 보고 양식을 그렸다. 상황보고는 뒷면에 먹지 두 장을 바쳐서 세 장을 만들어야 했다. 원본은 C.P로 들어가고 다음장은 사령부에 보내는 팩스용이고, 맨 마지막 장은 사무실 보관용이었다. 타자를 막 시작하려는 순간 정작과 선임하사가 검정색 서류 결재판을 들고 나타났다.

"하대위님,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나는 뭐 이러고 싶어 이럽니까."

선풍기 앞에 바짝 다가서서 웃옷 단추를 끌러고는 볼멘 소리를 했다. 모터가 다 됐는지 선풍기는 털털털 소음을 내며 돌아갔다.

"뭐가 그리 힘든 일이라고 상황보고 하나 제 때 못해."

사람 좋은 보좌관도 짜증이 나는지 한 마디 쏘아붙였다.

"오늘은 유일병 그 놈이 말썽이지 뭡니까. 돌아가면서 사고를 친다니까요. 오전까지 비문(秘文) 보유 현황을 뽑아 놓으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내무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늦게 올라와서는……."

"한 번 얘기를 하지 왜."

"웬걸요. 완전군장에 뺑뺑이 까지 돌렸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뭐 사병들 사정을 모른다나 어쩐다나. 그리고는 울먹이는 거였죠. 나도 사병 시절 얼 달이나 겪었는데 모르긴 왜 모르겠어요. 지가 칠칠치 못해서 그런 거지요."

유일병은 그랬다. 사람이 주변머리가 없었다. 급한 일이 있으면 행사고 뭐고 간에 내무반장에게 신고하고 사무실로 올라 가면 되는데. 그걸 못했다. 딴은 그렇다. 내무반에서는 사무실 업무 보다는 내무반 살림이 우선이었다. 내무반 일을 제쳐두고 사무실 업무 보러가는 졸병을 고참들이 고운 눈질로 바라볼 리 만무였다. 졸병들은 들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어려움이 비일비재했다. 반지버튼 졸병들이야 둘 사이를 잘 넘나들었지만 그것도 짬밥깨나 먹고 머리가 트여야 가능한 일이었다. 유일병은 짬밥 좋이 먹는축에 들어가는 데도 그런 융통성이 모자랐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지청구를 듣는 경우가 잦았다.

그렇다고 유일병이 내무반에서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었다. 내무반에서도 처지가 비슷했다. 심심하다 싶으면 한 번씩 사고를 치곤 했다. 사고래야 큰 사고도 아니었다. 종종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중간 고참들의 부이를 돋구곤 했다. 이를테면 이등병 때, 할 일 없는 왕고참들이 심심파적으로 웃기는 것을 한다 해서 멋모르고 웃어버린다든지, 고참이 장기를 두자고 해서 선선히 상대를 해 준다든지, 다른 졸병들은 잘도 피해가는 함정에 유일병만 곧잘 걸려들었다. 이등병은 내무반에서 웃을 수 없고 장기, 바둑을 두어서는 안 되는게 불문율이었다. 불문율을 깨드린 막내를 중고참들이 가만둘리 없었다.

〈다음주에 계속〉

당신의 비전을 실현해드리는
럭키금성의 新制度

육 성 면 담

"제 잠재능력을
키우려는 회사측의
노력 덕분에 이젠
회사의 대들보로
당당히 자랐습니다"
럭키금성상사 팀장 김기범

제가 육성면담을 할 차례가 되자 먼저 자기신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동안의 회사생활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희망하는 직무와 자신의 미래상을 자기신고서에 쓰면서도 정말 써넌대로 받아들여질까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속상사인 과장님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제 고충과 포구를 털어놓고, 인재개발위원회의 면담위원과 직접면담을 나누는 일련의 과정을 밟으면서 이건 기존의 인사평가와는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후 인재개발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통보받고, 제 희망이 의외로 많이 반영된 것은 물론 제 자신조차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잠재능력과 가능성이 높이 평가된 것을 보고는 무척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인재개발과 육성에 있어서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주변 동료나 고객들의 의견까지 참고가 되었다더군요.
저는 육성면담 후 제가 어떤 일터적인 잣대에 의해 측정되지 않고 적만이 가진 개성과 장단점, 그리고 능력을 충분히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회사가 믿어주고 있다는 신뢰감에 더욱 의욕적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인재개발이란, 개인차를 인정한 위에서 명확한 기준으로 합리적인 평가를 한 후 스스로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동토를 조성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 업적과 자질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인정받는 직장에서라면 제 개인적인 비전이 회사의 비전과 조화롭게 일치되어 서로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럭키금성은 믿음과 애정을 바탕으로
사원들의 자아실현을 돕고 있습니다.

인간존중의 경영
럭키금성